

Transport Valuechain Daily



2024. 1. 24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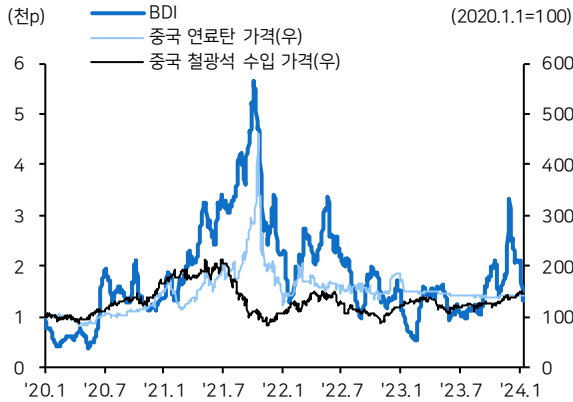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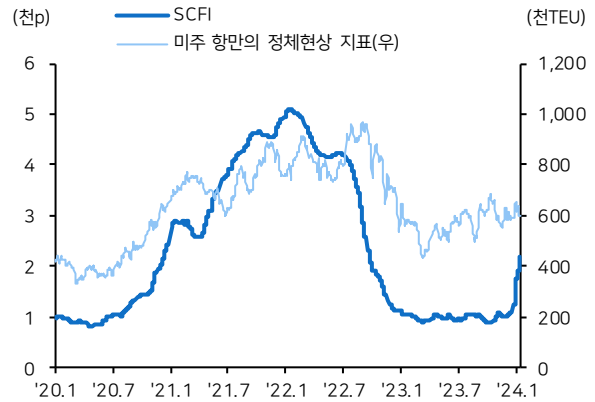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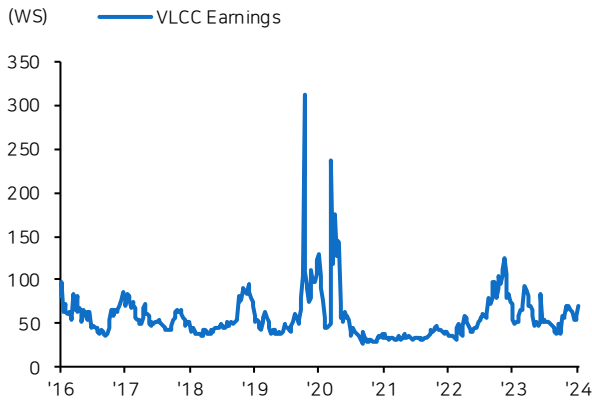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473.0p(-4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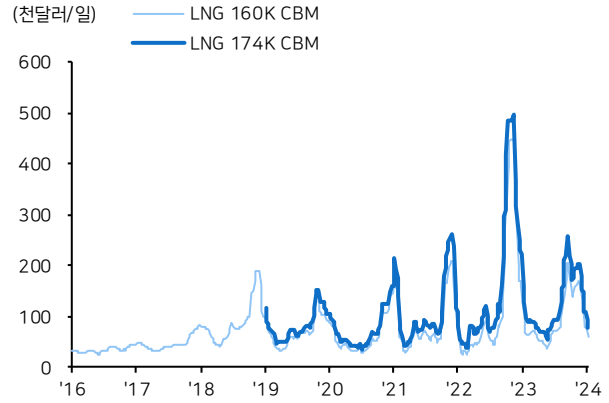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239.6p(+33.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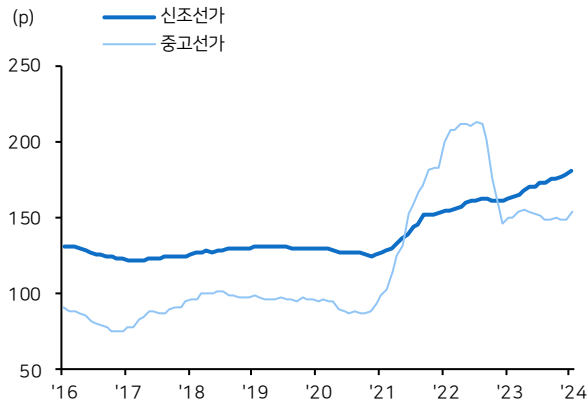
VLCC Spot Rate 65.5p(-3.8p WoW)



LNG Spot 운임 45.0천달러(-15.0p WoW) / 57.5천달러(-17.5p WoW)



신조선가 181.0p(-0.0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72.0달러(+3.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yundai bags three more VLAC orders worth a combined \$366m

HD현대중공업이 NYK Line으로부터 VLAC 3척을 3.66억달러에 수주했다고 보도됨. 88,000CBM급 선박으로 척당 1.22억달러 수준에 계약됨. 2028년 6월까지 인도될 예정임. (Tradewinds) (<http://tinyurl.com/2czun3c3>)

Atlantic bulker supply being soaked up as ships avoid Red Sea, says Braemar

대서양 지역 벌크선 공급이 홍해 사태로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됨. 아시아항 캐나다산 철광석, 미국산 석탄 수송이 지난 4주간 희망봉 우회노선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짐. 1월 14일 기준 수에즈운하 벌크선 통항량은 1달 전 대비 59척 감소한 60척 수준이었다고 알려짐. 홍해 항로 이용이 어려워지며 지중해, 흑해와 북대서양 지역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t.ly/Xg6i_)

Trinidad and Tobago in talks with European countries to supply LNG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몇몇 유럽 국가들과 LNG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됨. 베네수엘라산 가스로 생산될 예정으로 언급됨. 지난 12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Shell과 트리니다드토바고 국영가스공사에 Dragon 가스전 30년 개발사업권을 부여한 바 있다고 언급됨. Dragon 가스전은 약 4.2조큐빅피트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짐. (Offshore Technology) (https://t.ly/O2_8V)

Independent tenders Indonesia field development aiming for 2025 start-up

인도 Medco Energi가 Terubuk유전 EPCI 계약 입찰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해당 유전은 2025년 가동을 목표로한다고 알려짐. (Upstream) (<https://t.ly/qrqRH>)

BP sees Trinidad gas project getting green light as soon as 2025

BP는 트리니다드토바고의 Calypso 가스전 프로젝트가 2025년말 FID를 받을 기대한다고 보도됨. 해당 가스전은 Woodside Energy가 주관하고, 3.5조큐빅피트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됨. (Upstream) (<https://t.ly/rKFxq>)

아시아나, 밀린 기내식 대금 182억 지급 확정...항소 포기

아시아나항공이 계약분쟁을 벌인 LSG스카이세프코리아에 기내식 대금 지급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보도됨. 이에 LSG에 182억원의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알려짐. 지난 2017년 계약연장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제시한 금호홀딩스 투자를 거절하자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며 기내식 공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함. (뉴스1) (<https://t.ly/-DxOT>)